광주 혁신주체들 "역량 결집 새 산업지도 그리자"

지자체·산업·대학·연구기관 등 200여명 신년인사
지역경제 발전·혁신 생태계 조성 등 미래비전 공유

광주시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2026 지산학연 거버넌스 신년인사회'를 갖고, 광주 새 산업지도를 그리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지역 지자체·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 지역 혁신 주체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산학연 거버넌스는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안·정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했다. 업종별 11개 분과협의회와 총괄협의체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데이터산업 등 각 분야 혁신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졌다.

행사장에는 광주시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운영,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광주시 산업 육성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혁신 주체들은 "이번 신년인사회가 통합의 가치를 공유하고, 거버넌스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뜻을 모아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의 산업이 넓어지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지산학연 각 주체가 가진 역량을 하나로 집결해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리겠다"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반도체와 문화로 활짝 꽃피는 부강한 광주전남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2026 지산학연 거버넌스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동구목재문화센터, 문화·여가 거점 '자리매김'

개관 한 달 만에 1500여명 방문…친환경 목재 체험 인기
1층 목재문화카페 운영…다양한 세대별·수준별 프로그램

광주 동구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로 조성한 동구목재문화센터가 개관 한 달 만에 1500여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문화·여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개관한 동구목재문화센터에 지난 15일까지 총 1596명이 방문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환경 목재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층별로 보면 2층 '목재상상놀이터'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 기간에만 888명이 이용했으며, 1월 중순까지 합산하면 총 1309명이 방문했다.

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회차별 20명 이내 소규모 운영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동구 어린이집 등 단체 이용으로도 이어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층 '뚝딱 나무 교실' 역시 목공 키트 체험을 중심으로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 자동차, 구름 문패 제작부터 무드등, 원목 도마 제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개관 이후 약 한 달간 총 287명이 참여하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

센터는 당초 목재상상놀이터 20명, 목공 키트 체험 프로그램 10명 등 1일 총 30명 이용을 목표로 했으나, 개관 이후 약 한 달간 두 공간의 일 평균 이용자가 42명으로 집계되며 계획 대비 약 40% 증가한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1층 목재문화카페(무인 자판기)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센터 방문객의 편의성 향상과 더불어 주민 대상 홍보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운영 성과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목재상상놀이터와 뚝딱나무교실은 공식 홈페이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개인은 물론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10일 개관한 동구목재문화센터에 지난 15일까지 총 1596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친환경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

동구 관계자는 "동구목재문화센터가 주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며 "앞으로 세대별·수준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확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파랑새안과는 최근 본원 10층 기획실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과 노인 방한용품 지원금 총 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파랑새안과, 나눔캠페인·방한용품 성금 전달

광주사랑의 열매…총 500만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파랑새안과가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과 노인 방한용품 지원금으로 총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탁식은 지난 16일 광주 동구 파랑새안과 10층 기획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선택 원장을 비롯해 임채우 행정실장, 안준형 계장 등을 비롯해 박흥철 광주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금은 파랑새안과 임선택 원장, 김창룡 원장, 문형진 원장, 이준성 원장, 강연수 원장, 김영휘 원장, 문자영 원장이 함께 뜻을 모았다.

300만원은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으로 적립돼 광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난방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에 사용된다. 200만원은 서빛마루시니어센터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겨울 방한용품 지원에 활용된다.

임선택 파랑새안과 원장은 "지역사회에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흥철 광주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동시에 생각한 파랑새안과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맞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사랑의열매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기업·단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문화재단, '예술·기업 동반성장' 우수재단 성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시상금 수여
민간 등 지역 특성 반영 후원 모델 구축 인정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과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역 예술인·예술단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재단이 그간 별도의 문화예술 후원사업이 없던 여건 속에서 이같은 사업을 계기로 지역 기업과 예술단체 간 협력 루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후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사업 추진을 통해 총 9개 예술단체와 21개 기업 간 후원결연을 성사시키며 국비 3억1700만원을 확보, 전국 참여 기관 중 상위 3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정기부제도를 활용한 '전남 예술 후원사업'을 신규로 운영해 8개 예술단체 대상 16개 기업의 기탁을 이끌어내며 총 1억4100만원 규모의 민간 후원금을 지역 예술현장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재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부터 문화예술 후원 기반을 더욱 체계화하고, 민간재원 확보 확대와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후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예술단체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전남형 문화예술 후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남문화재단은 최근 '2025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과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보성군, 응급의료 체계 강화
중증 환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보성군은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상급병원 원스톱 진료 연계 서비스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등 응급 의료 체계 유지·강화에 나서고 있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보성아산병원과 중증 환자 원스톱 진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상급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과 진료 연계가 가능한 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보성아산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진료협력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증 환자 전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월평균 1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진료를 받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광주 동부경찰, '목소리 지문' 제보 캠페인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내달 11일까지 집중 홍보

광주 동부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이스피싱 범인이 신분을 바꿔 접근하더라도 '목소리 지문(성문)'에 주목해 국민으로부터 제보받은 범인 실제 음성을 분석해 범인 특정 또는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 방법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와 수법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통화의 범인 목소리를 녹음하고 통화 종료 후 녹음파일을 등록하면 된다.

동부경찰은 다음달 11일까지 은행,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포스터를 부착하고, 창구·민원 대기공간에서 전단 배포와 맞춤형 예방 안내를 병행하는 등 시민 접점 중심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협업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추진 중이다.

특히 충장치안센터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시설로 일시 운영해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 비치, 예방수칙 안내, 참여 방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